

**삼성전자,
명품 LCD TV '보르도' 출시**



삼성전자는 세계 프리미엄 고객들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와인잔 모양의 LCD TV, 일명 보르도 시리즈(모델명 LN32/40R71BD)를 출시하고 세계 명품 TV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

이 제품은 블루와 와인 컬러를 제품 하단에 적용하여 붉은 포도주가 담긴 와인잔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32인치 제품의 두께가 불과 8cm, 40인치가 8.7cm 에 불과하여 진정한 박형(薄型) TV로서의 면모를 갖춘 세계 초슬림 LCD TV이다.

지난해 출시되어 밀리언 셀러를 기록한 로마 시리즈의 디자인인 'V자형'을 적용하고 액정표시장치(LCD) 밑면에 곡선감을 높였으며 제품의 전면은 물론 테두리, 후면 디자인까지 고려하여 고품택 하이그로시 코팅 처리를 통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기능적인 면에서도 삼성의 Super-PVA 패널을 사용하여 또렷한 화질 구현은 물론 178도 광시야각이 적용돼 어느 방향에서도 TV를 선명하게 즐길 수 있다.

**LG전자,
250GB 타임머신 LCD TV 출시**



LG전자는 250GB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37·42인치 타임머신 LCD TV를 출시했다고 4월 6일 밝혔다.

이 제품은 TV를 켜는 순간부터 2시간 분량을 자동으로 녹화하고, 최대 92시간까지 영상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선보인 160GB 42인치 타임머신 TV보다 녹화시간이 30시간가량 늘어 독일월드컵 전 경기를 녹화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LG전자는 이와 함께 2분기중 250GB의 47인치 타임머신 LCD TV를 출시해 46인치와 47인치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화면 LCD TV 표준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할 방침이다.

윤상한 LG전자 부사장은 "세계인의 축제가 시작되는 6월부터 타임머신TV의 진가가 뚜렷해짐에 따라 LCD TV 표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이라며 "LG전자는 2008년 LCD TV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은 벽걸이 기준으로 37인치 320만원, 42인치 410만원이다.

**대우일렉,
'엘코스 TV' 2종 출시**



대우일렉이 차세대 프로젝션 TV로 각광받는 '엘코스(LCoS) TV'를 선보인다.

대우일렉은 43인치 디지털 셋톱박스 일체형 엘코스 프로젝션 TV 2개 모델을 본격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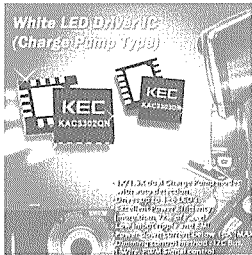
엘코스 TV는 실리콘 상층액정(LCoS:Liquid Crystal on Silicon) 방식의 프로젝션 광학엔진을 사용해 DLP 프로젝션TV의 단점인 '레인보우 이펙트'를 없애는 등 화질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대우일렉의 엘코스 TV는 화면을 이루는 개별 화소간의 간격이 거의 없어 기존 프로젝션TV나 평판TV에 나타난 격자무늬를 최소화했다. 또 고급 LCD TV보다 10배 이상 빠른 0.7ms의 응답속도를 구현해 움직임이 많은 영상에서도 잔상없는 깨끗한 화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40인치대 PDP·LCD TV의 절반 수준으로 소비전력(160와트)을 낮추고 램프 수명도 1만시간까지 늘려 경제성도 높였다.

대우일렉 김명범 상무는 "이 제품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 두마리 토끼를 잡은 신개념 TV"라며 "평판TV는 가격 때문에, 프로젝션TV는 화질 때문에 구입을 망설인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C, 고성능 백색 LED Driver IC 국산화 개발 및 출시



KEC는 휴대폰, 디지털 스틸 카메라, PDA, MP3, LCD모듈 등 휴대 이동기기용 Charge-pump형 6채

널, 4채널 백색 LED 드라이버 IC 2종(상품명 : KAC3302QN, KAC3303DN)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하여, 금월부터 출시한다.

백색 LED 드라이버 IC는 각종 휴대이동기기의 디스플레이(Display) 및 Key Pad 의 조명에 사용되는 백색 LED의 동작을 제어하는 반도체로, 휴대이동기기의 보급확대로 그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며, 현재 국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Charge-pump형 백색 LED 드라이버 IC는 2개의 초소형 세라믹 커패시터(Capacitor)를 이용하여 백색 LED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기존 코일(Coil)을 이용한 Switching형 백색 LED 드라이버 IC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정전기 및 노이즈(Noise)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외부 부품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최근 휴대 이동기기의 초절전화, 초슬림화 요구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KEC가 이번에 독자기술로 개발하여 출시한 KAC3302QN(TQFN16, 4mm x 4mm x 0.75mm)은 동시에 최대 6개의 백색 LED를 개별로 On/Off 및 밝기 조절 등을 가능케 하여 휴대폰의 Main 액정, Sub액정, Key Pad 를 하나의 IC로 구동시킬 수 있어, 최근 휴대기기 액정의 대면적화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다.

에이로직스, 영상압축알고리즘 칩 3종 출시



에이로직스는 CCTV 카메라를 사용하는 DVR 제품의 특성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영상압축 알고리즘 칩 3종을 출시했다고 3월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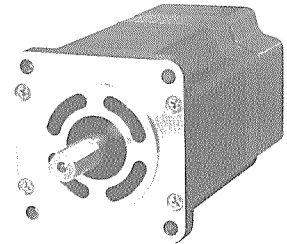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AMVIC-0030, 0060, 0120 등 3종으로 각각 720x480의 크기 영상을 초당 30, 60 및 120 프레임씩 지원한다. 16개의 카메라에서 입력되는 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녹화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이번 출시된 칩은 CCTV카메라를 사용하는 DVR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있어 압축효율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기존 표준방송시스템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열티 부담도 없다.

기존 DVR에 사용되는 압축 및 복원 알고리즘은 표준 방송시스템에 맞춰져 있어, DVR 시스템에 사용할 경우 영상 데이터의 압축효율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에이로직스가 자체 개발해 이번 칩 개발에 채택한 알고리즘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사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해외출원 및 국내 특허등록이 완료됐다. 이 제품은 약 250:1의 압축성능을 나타내며, CCTV 카메라에 입력되는 영상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 압축률이 가변되며, 움직임이 적은 영상의 경우에는 500:1 이상까지도 압축이 가능하다. 때문에 제한된 하드디스크의 용량으로 오랜 시간동안 녹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오토닉스, AK-B시리즈 출시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 오토닉스가 국내 최초로 85각 5상 스테핑 모터에 Electromagnetic Brake를 장착한 Brake type AK-B 시리즈 12종을 출시하였다. 위치 변동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한 브레이크 타입 AK-B 시리즈는 전원 차단 시나 위치 정지 시 Brake력이 발생하여 고정밀 위치제어를 실현함으로써 비상정지 기능이 필요한 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고평크, 고정도를 실현한 AK-B 시리즈는 펜타곤 결선 6종 외에 스탠다드 결선 방식 6종 등 총 12종을 출시하였으며, 컴팩트한 장비에 적용이 가능하여 공간 활용도가 높아져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였다.

주요 특징점

- 고정도, 고평크, 고정밀 특성 실현
- 85mm 축형에 전자 Brake 장착
- Brake 전원 차단시 Brake력 발생으로 정전시 현재 위치 유지
- Z축상의 부하 구동에 적합 (X, Y 축도 적용 가능)
- 저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성 향상